

전남 외딴 산골, 대통령 선거도 조용히 지나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다시 대한민국'

화순군 청풍면 백운마을... 주민 60명 대선 후보 벽보·현수막 없이 '고요' 상점 없고, 버스 하루 네번만 운행 의료 인프라 부족... 인구 급감 지속 "청년 정착할 수 있는 시골 만들길"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면 모를까, 대통령 선거는 잠잠하게 지나가는 편이죠."

지난 10일 찾은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백운마을에서는 불과 일주일 전에 끝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 마을회관이나 그늘 쉼터에 정겹게 모여 앉은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선거 결과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았다.

백운마을은 인구 71명의 산속 농촌 마을로, 총 959명에 불과한 청풍면에서도 한적한 편에 속한다. 이는 요양원에 입원한 어르신이나 주소지만 두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까지 포함한 숫자로, 실



지난 10일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백운마을에서 공공근로를 마친 어르신들이 마을길을 따라 걷고 있다.

제 마을에 머무는 인구는 60여명 남짓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마을 어귀 어디에도 후보자를 알리는 벽보 한 장 붙지 않았다. 면 단위 기준 인구 100명당 하나가 붙는 후보 벽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마을이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내건 현수막도 이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이 선거 열기로 분주했던 시기에도, 이마

을에는 그저 산골의 적막함만이 이어졌을 뿐이다.

김진홍(61) 이장은 "흔히 볼 수 있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도 없었고, 유세 차량도 드물게 지나갔다. 여기는 선거때도 조용한 편이다"며 "호남 지역 특성상 표심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 운동원들도 굳이 우리 마을처럼 외곽 산촌까지 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연히 들른 백운마을의 고즈넉한 풍경

에 반해 정착한 김 이장은 광주광역시에서 은퇴 후 내려온 지 10년째다. 도시 기준으로는 '시니어'지만, 이곳에서는 '젊은 일꾼'으로 통한다.

마을에서 가장 젊은 세대인 50대도 고작 5명에 불과하고, 60대 역시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주민들은 대부분 70~80대 이상 고령층이다. 수십년 전만 해도 아이들과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을 왁자지껄하게 채웠지만, 지금은 추억이

된 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조차도 예전만은 못하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고, 농사일이 대체로 기계화된 덕분에 겨우 지탱하고 있는 형편이다. 생활비는 도시에 있는 자녀들의 지원이나 연금, 공공근로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귀현(78) 할아버지는 "청풍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동네 친구끼리 여럿 모여 학교에 다녔다"며 "당시만 해도 젊은 어른도 많아서 마을에 활기가 들었다. 마트도 있었는데, 사라진 지도 한참됐다"고 회상했다.

유일했던 마트가 문을 닫은 뒤로 백운마을에는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사라졌다. 간단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면 소재지나 인근 이양면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하고, 장을 보려면 30여분 거리의 화순읍까지 나가야 한다.

의료 시설도 마찬가지다. 면 내에 보건지소가 하나 있지만 기본적인 처치만 가능한 수준이라, 주민들은 병이 나면 참고 버티다가 '큰맘 먹고' 하루 시간을 들여 광주의 병원을 찾는다. **▶ 3면에 계속**

▶ 관련기사 3면 글·사진·윤준명 기자

李 대통령 "주식 배당 촉진 세제·제도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국거래소 방문 현장 간담회 "주가조작 윈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베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말하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과 관련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껌대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뀌어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 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걸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당 이득의 과징금을 몰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제21회 전남보훈대상

제21회 전남보훈대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전남보훈대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보훈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전남일보에서 제정하였으며 전남서부보훈지청과 전라남도가 후원하여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 및 보훈단체 회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보훈가족과 보훈단체 등을 위해 크게 헌신한 분에게 수여됩니다. 시상식은 오는 6월 19일(목) 오전 11시 전남보훈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지역민의 많은 성원과 격려 바랍니다.

수상자

- 상이군경 부문-정재욱(80·해남)
- 특별 부문(애국지사 유족)-윤미혜(64·여수)
- 중상이 배우자 부문-김축여(75·보성)
- 특별 부문(6·25참전유공자)-강이원(91·장성)
- 미망인 부문-오야모(82·목포)
- 특별 부문(고엽제후유의증)-김해룡(77·목포)
- 유족 부문-박진규(75·강진)
- 특별 부문(5·18부상자)-정석봉(82·목포)

시상식

- 일 시 : 6월 19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전남보훈회관 4층 대강당

